

# 전주시, '책나래 서비스' 확대

### '장애인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내년부터 12개 모든 시립도서관서 운영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가 내년부터 전주시 12개 모든 시립도서관에서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는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대상자에게 원하는 자료를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 주는 '책나래 서비스'를 내년부터는 기존 6개 도서관에서 12개 모든 도서관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 대상자 등으로, 도서 자료 대출과 반납에 필요한 택배 비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전액 지

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 시립도서관 누리집(ih.ponju.gov.kr)과 책나래 누리집(an.nl.gov.kr)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한 뒤 책나래 누리집을 통해 희망하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반납 신청하면 된다. 기타 증명서류 및 회원가입 절차는 해당 도서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권의 대출이 가능한 자료로 1회당 10권까지 최장 30일 동안 빌려볼 수 있다. 누리집을 이용한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전주시역 '책나래

서비스'는 총 160여 명이 이용했으며, 이들은 1011권의 자료를 책나래 서비스를 통해 빌려왔다.

또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2024년 책나래 서비스 우수 운영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국립장애인도서관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책나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독서 생활 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책의 도시답게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 전주시지역 어르신 꿈·희망 굶는 화덕

### 전주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창출 위한 '맘피자엔케이터링' 사업단 개소식 개최

전주시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공동체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전주시니어클럽은 23일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김석면 전북특별자치도 고령화정책과장, 최형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맘피자엔케이터링(화덕피자) 사업단의 개소식을 가졌다.



전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전주시니어클럽은 23일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김석면 전북특별자치도 고령화정책과장, 최형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맘피자엔케이터링(화덕피자) 사업단의 개소식을 가졌다.

'맘피자엔케이터링' 사업단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건강한 먹거리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 전주시니어클럽의 신규 공동체사업(옛 시장형사업)이다.

김효춘 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맘피자엔케이터링은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협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맘피자엔케이터링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좋은 기회

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 전주시, 중·고교생 600명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전주시가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전주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600명을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시는 대상자의 연간 수강료 4만5000

원 중 3만5000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수강생은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대상자는 인원 제한 없이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는 전주시 거주 여부 등 자격조건을 확인한 뒤 내년 1월 초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청년정책과(063-281-53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이번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사업은 시와 강남구청이 체결한 공동이용 협약에 따른 것으로, 강남인강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360여 개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어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 현직 교사와 대치동 유명 강사 등이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육기 기자

# 전주시, 주소정책 추진 '우수'

### 행안부 장관 표창·특별교부세 4000만원 인센티브 확보

전주시가 시민 편의를 위한 주소정 책을 잘 추진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주소정책 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 한해 주소정책 업무를 추진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소정보 활성화와 주소정책 홍보, 주소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의 분야로 나누어 우수 지자체를 평가했다.

그 결과 시는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선제적 상세주소 부여 △공공주차장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생활 편의시설의 위치 찾기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빈·탈색 등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로 주소 사용 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SNS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주소정보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소정보 활성화 분야의 경우 상세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 정비, 시민 불편 개선 및 정책 제안 참여도 등 10개의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주소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좀 더 나은 주소정보 구축 등 적극 행정으로 시민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 전주시, 85명에 임기 만료 퇴직통장 공로패 수여

전주시가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맡아온 퇴직 통장들에게 감사 표창

시는 2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임기만료 퇴직통장 공로패 수여식'을 열고 지난 7월부터 12



전주시는 2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임기만료 퇴직통장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월까지 통장 임기가 만료돼 퇴직한 85명(완산구 43명, 덕진구 42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통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해 온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로패를 받은 김영숙 씨(前 평화동 25통장)는 "일반시민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통장 임무 수행을 통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전주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통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성실히 봉사해 주신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책홍보와 주민불편사항 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각종 방역지원 활동 등 적극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신 통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주소정책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